

장수한우 브랜드 산업 발전 기여 무주군, 지적기준점 설치 나선다

장수한우지방공사가, Korea Top Awards 명품브랜드 대상 6년 연속 수상

장수한우지방공사가 2022 Korea Top Awards에서 6년 연속 명품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인론인협회가 주관해 올해 11회를 맞이하는 Korea Top Awards는 지난 21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진행됐다.

Korea Top Awards는 신종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의 기업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비자와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40여 개의 기업을 발굴해 포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장수한우지방공사는 한우산업 유일의 공기업으로, 공익을 위한다는 사명을 잃지 않고 한우산업 발전과 한우 품질향상에 주력해 이를 통한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2022 Korea Top Awards에서는 고객 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 브랜드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장수한우지방공사가 2022 Korea Top Awards에서 6년 연속 명품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진구 사장은 "지속적인 종축개량과 번식기반 조성을 통해 장수한우 종축 기지화를 추진하고 고품질 한우의 유전자 개발과 사양관리를 통해 한우 산업 발전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수한우 브랜드에 대한 소비

자들의 인지도 및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과 함께 품질에 대한 차별화는 물론 친환경 축산물 인증 등 최고의 장수한우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 미래 발전 · 현안 해결사 될 것”

김광수 전 진안군의회 의장, 전북도의원 출마 선언

김광수 전 의장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라북도의원 출마를 위해 지난 25일 사직하고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진안군, 추파용 사료작물 종자 신청 6월까지 연장

진안군이 곡산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파용 사료 작물 종자 신청기간을 6월까지로 확대 연장 운영한다.

군은 국내에서 직접 조사료를 생산 이용할 경우 생산비를 절감해 축산업

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 사료용 작물 생산을 권장하고 있으며, 소, 말, 염소 등 초식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파종하는 농가에게는 종자 구입비의 30%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 종자는 호밀, 이탈리안리그라

스, 헤어리벳지, 청보리, 켄터키블루그라스, 티모시 등이다.

종자를 신청하면 올해 약 10월 경에 각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며, 농가는 해당 종자를 파종 이후 이듬해 봄에서 여름 전까지 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를 완료해야 군에서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장려금(20원/kg)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적 오차 없는 국제 표준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국제사업

무주군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적기준점 설치에 나섰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이란 기존 일본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설정된 지역 측지계에서 세계적으로 통용할 수 있고 지구 중심을 원점으로 지역적 오차가 없는 국제 표준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국제사업이다.

그동안 일본 동경원점 기준으로 작성됐던 지적도와 임야도가 세계측지계 기준과는 약 365m 편차가 발생, 측지계 일원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을 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으로 도로, 하천 등에 매설돼 있다. 이번에 설치되는 지적기준점은 군 전 지역에 걸쳐 100점 설치가 계획돼 있으며, 오는 9월께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박금규 과장은 "이번에 구축하는 기준점을 활용 디지털 지적을 구축함으로써 일제 잔재 청산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도로, 구거, 하천 등에 설치된 지적기준점이 도로 확·포장 및 개설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공사 시행 전 반드시 사전 협의를 요청해줄 것을 각종 공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한다

무주군은 관내 지역생활권내 우범지역 등 범죄 사각지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달 6일까지 관내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CCTV를 설치해 주민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 각종 범죄의 성격이 날로 다양화·복합화됨에 따라 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 안전한 삶 영위를 위한 주민들의 방범시설물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군은 사업비 3,000만 원을 들여 무주읍 3개소(무주중학교 후문 등),

부남면 2개소(부남농협 삼거리 등) 등 관내 5개 지역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범 CCTV 설치로 지역생활권 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안전위험요소 경감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행복도시 무주구현이 기대된다.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 박승호 팀장은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없는 안전한 밝은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범죄유발 심리를 일으키는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범시설물을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지역 로컬job센터 간담회 무주서 개최

무주군로컬job센터 김선태 센터장은 26일 도농(都農)상생형 로컬job센터 사업은 2022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지역 혁신프로젝트 사업으로써 도농상생형 로컬job센터 1개 사업을 4개군(완주, 무주, 장수, 고창)이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고 상호 발전방향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북도,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무주군, JVADA, 전주기전대학,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4개군 로컬job센터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26일 실시했다.

전북지역 4개군 로컬job센터는 도농(都農)상생형 로컬job센터 사업을 통하여 일손부족이 심각한 농업인을 위해 도시 유휴인력을 연계하여 농업인의 고충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별 로컬job센터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농가일자리 발굴 및 연계 전략에 대한 협의, 도농상생 플랫폼 구축 및 단체 상해보험 가입 협의, 각 센터별 애로사항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또한 4개군 로컬job센터장은 사업의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이경래 팀장은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인 도농상생형 로컬job센터 사업이 성공적인 모델이 되어, 전국적인 농촌형 일자리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무주군로컬job센터 김선태 센터장은 "도농(都農)상생형 로컬job센터 사업을 무주군과 협력하여 농촌일손이 절실한 농업인의 인력수급 안정화와 도시 구직자의 일자리 창출로 농가의 생산성 증대에 새로운 길이 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학생 건강검진 실시

무주군이 26일 학생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관내·외 초·중·고 15개교 240명을 대상으로 학교별 사전 예약 후 보건의료원에서 이달 27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내소 검진을 받는다.

검진은 신체계측, 비만인 경우 추가 혈액 검사, 결핵검사(중·고등학생), 요검사 등 다양한 검사와 질병상단, 건강관리 방법 등을 상담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원은 검사결과를 학교에 발송하고 소정의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건강검진은 학생들의 건강을 진단해 건강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검진 결과 우수점이 나온 학생들의 경우 치료를 권장하고 의료기관을 의뢰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총력을 쏟기로 했다.

무주군보건의료원은 앞으로도 관내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검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장수읍,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장수읍은 코로나19를 법정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금이 새롭게 변경된다고 26일 밝혔다.

변경된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내용에 따르면 2022년 3월 16일 격리자부터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은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통장사본, 격리통지서, 신분증 등을 구비해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4월 25일(이행)부터 계속되는 4주간은 현재와 동일하게 지원되며 안착기로 전환되는 5월 23일부터는 격리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활지원비도 중단될 예정이다.

김기완 장수읍장은 "힘든 격리를 마친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신청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